

찬양해요

천송가 358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창세기 28:10-19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야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무스더라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

또 어머니 리브가가 조안한 대로 형 예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내성적인 사람으로 자라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방랑의 나그네가 되어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동시에 장래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걱정으로 밀려옵니다. 그는 해가 지지 물을 빼개 삼아 외롭고 슬픈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는 고독한 여행길을 가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신앙의 놀라운 진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굽이 하나님을 만나 받은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 1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지금 아굽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0-12절)?
- 2 하나님께서 아굽에게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13절)?
- 3 하나님께서 아굽에게 두 번째로 하신 약속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4절)?
- 4 하나님께서 아굽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15절)?
- 5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굽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들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가족 모두 설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